제55호(2013.4.19)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

김 창 길　정 학 균　문 동 현

1.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현황 ····· 3
2.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규모와 전망 ····· 13
3. 세계 유기농업의 현황 및 시장 규모 ····· 19
4. 시사점과 과제 ·····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02-3299-4221 jhkim@krei.re.kr
내용 문의: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02-3299-4265 changgil@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01,688ha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2010년 이후 저농약인증 면적의 감소로 연평균 5.4%의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전체적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은 2010년 이후 각각 연평균 18.0%, 2.5% 증가세로 나타남.

2012년 현재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저농약인증 농산물의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5.5% 감소한 3조 809억 원으로 전망됨. 친환경농산물시장은 전체 농산물시장의 약 9% 정도로 점차 틈새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음.

세계적으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트랜드의 확산으로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매년 20%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0년 기준 세계 유기농산물은 약 160개국, 3,700만 ha의 유기농경지에서 생산되고 있고, 유기식품 및 음료 시장의 규모도 약 591억 달러(67조 원)로 추정됨.

2013년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평년 작황을 가정할 경우 2012년 대비 1.8% 정도 증가한 3조 1,373억 원으로 전망됨. 저농약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의 효과로 유기와 무농약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친환경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의 꾸준한 증가로 2014년에 3조 4,434억 원, 2015년에는 3조 8,732억 원으로 증가하며,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거래액의 약 20%인 7조 4,749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임. 과일류의 경우 유기와 무농약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데 반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농약 인증이 줄어 전체 친환경 과일류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2016년 이후 공급물량이 201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친환경 과일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직불제의 개선, 생산자 보험,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저농약 인증농가의 유기와 무농약으로의 인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유기와 무농약 등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의 수요창출(학교급식 확대, 가공식품 생산 등)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1.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현황

▢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감소세, 유기와 무농약은 꾸준히 증가

○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9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표 1>

- 2000~2009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수는 연평균 63.0%, 인증면적은 66.6%, 출하량은 59.4%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09~2012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수는 연평균 10.4%, 인증면적은 6.6%, 출하량은 14.0%로 감소함
-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다만, 무농약농산물 출하량이 2010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음. 저농약의 경우 농가 수는 2009년 이후, 인증면적과 출하량은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저농약농산물의 급격한 감소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감소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단위: 호, ha, 톤, %

구 분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1)]	2000-12 연평균 증감률	2008-12 연평균 증감률	2010-12 연평균 증감률
유기	농가수(호)	353	8,460	9,403	10,790	13,376	16,733	37.9	14.6	15.7
	면적(ha)	296	12,033	13,343	15,517	19,311	25,467	45.0	16.2	18.0
	출하량(톤)	6,538	114,649	108,810	122,243	123,314	168,256	31.1	8.0	11.2
무농약	농가수(호)	1,060	45,089	63,653	83,136	89,765	90,325	44.8	14.9	2.8
	면적(ha)	876	42,938	71,039	94,533	95,253	101,657	48.6	18.8	2.5
	출하량(톤)	15,694	554,592	879,930	1,039,576	979,791	841,513	39.4	8.7	-6.8
저농약	농가수(호)	1,035	119,004	125,835	89,992	57,487	36,025	34.4	-21.3	-26.3
	면적(ha)	867	119,136	117,306	83,956	58,108	37,165	36.8	-20.8	-23.8
	출하량(톤)	13,174	1,519,070	1,369,034	1,053,702	749,136	488,466	35.1	-20.3	-22.6
합계	농가수(호)	2,448	172,553	198,891	183,918	160,628	143,083	40.4	-3.7	-8.0
	면적(ha)	2,039	174,107	201,688	194,006	172,672	164,289	44.2	-1.2	-5.4
	출하량(톤)	35,406	2,188,311	2,357,774	2,215,521	1,852,241	1,498,235	36.6	-7.3	-12.2
경지면적(ha)		1,888,765	1,758,795	1,736,798	1,715,301	1,698,040	1,729,982	-0.7	-0.3	0.3

주: 1) 2012년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잠정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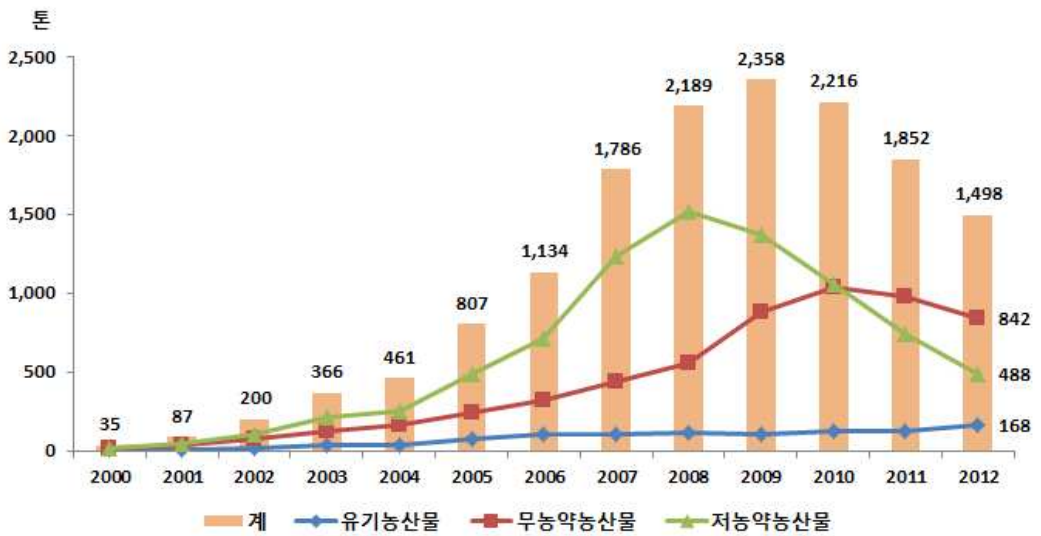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보면,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 유기농산물의 경우 2008년 114,649톤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9년 108,810톤으로 약간 침체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12년 유기농산물 출하량은 전년 대비 36.4% 증가한 168,256톤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 무농약농산물은 2010년 1,039,576톤으로 최대 출하량을 기록한 후 2011년 979,791톤, 2012년 841,513톤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전체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1,498,235톤의 5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저농약농산물은 2008년 1,519,070톤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12년에는 488,466톤에 머물렀음. 2011년에는 저농약농산물 출하량이 무농약농산물 출하량보다 적어졌다는 것이 큰 특징임

그림 1.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특히 무농약 농산물 생산량이 최근에 빠르게 증가

○ 품목류별, 인증단계별로 출하량 동향을 살펴보면, 곡류의 경우 유기와 무농약은 1999~2012년 사이 연평균 69.0%, 79.8%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2008~2012년) 증가폭이 다소 완화되어 연평균 17.1%, 30.7%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 동안(2008~2012년)에 대해 저농약이 연평균 29.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연평균 2.0% 증가하는 데 그침

○ 과실류의 경우 유기와 무농약은 1999~2012년 사이 연평균 36.9%, 61.9%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2008~2012년)에는 증가폭이 다소 완화되어 연평균 25.6%, 20.3%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 동안(2008~2012년)에 대해 비중이 큰 저농약이 연평균 8.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연평균 7.2%로 감소함

○ 채소류의 경우 유기와 무농약은 1999~2012년 사이 연평균 25.1%, 36.3%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2008~2012년)에는 증가폭이 다소 완화되어 연평균 3.6%, 19.6%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 동안(2008~2012년) 비중이 큰 저농약이 연평균 15.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연평균 2.1%로 감소함

그림 2. 곡류의 친환경 인증단계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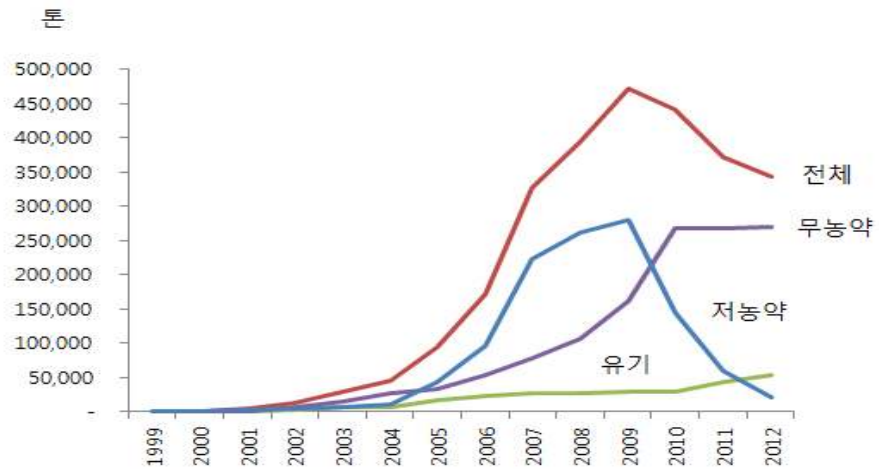


그림 3. 과실류 친환경 인증단계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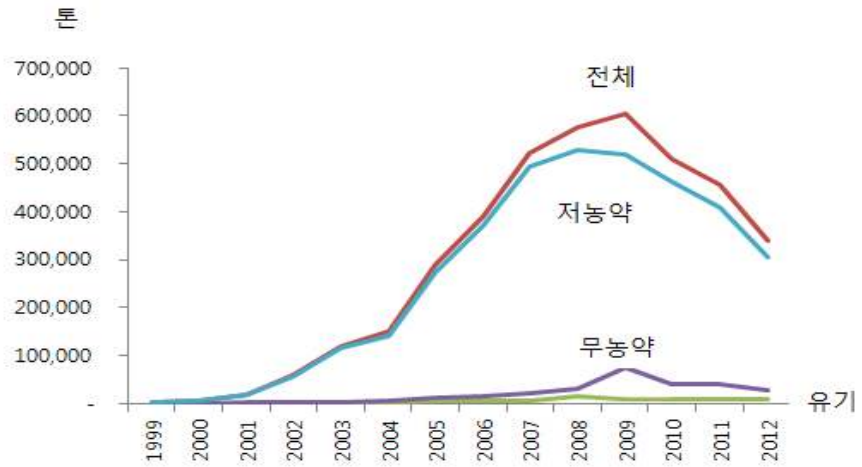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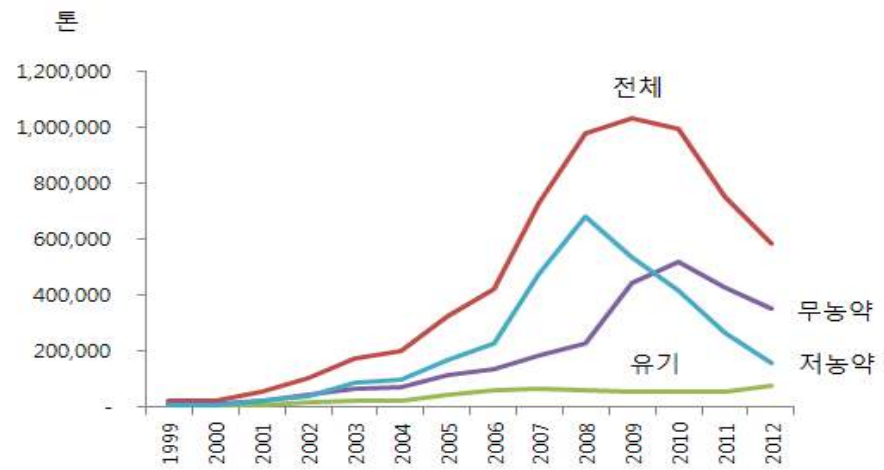


그림 4. 채소류 친환경 인증단계별 생산량 추이



○ 2012년을 기준으로 부류별·인증단계별 출하 현황을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이 11.2%, 무농약농산물이 56.2%, 저농약농산물이 32.6%를 차지하여 무농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류는 전체 343,380톤 가운데 무농약이 7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기 15.7%, 저농약 5.8%를 차지하고 있음. 채소류도 전체 585,004톤 가운데 무농약이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농약 27.2%, 유기 12.8%를 차지하고 있음. 서류와 특용작물도 무농약이 각각 72.2%, 9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과실류의 경우는 전체 341,054톤 가운데 저농약이 8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농약 7.9%, 유기 2.7%를 차지함

○ 전체 저농약농산물 488,466톤 가운데 과실류 저농약이 62.5%인 305,088톤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대응하여 과실류 저농약을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 친환경농산물 분류별·인증단계별 출하 현황(2012)

단위: 톤, %

분류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곡류	54,025 (15.7)	269,280 (78.4)	20,075 (5.8)	343,380 (100.0)
과실류	9,116 (2.7)	26,850 (7.9)	305,088 (89.5)	341,054 (100.0)
채소류	74,750 (12.8)	351,340 (60.1)	158,914 (27.2)	585,004 (100.0)
서류	9,023 (21.6)	30,157 (72.2)	2,602 (6.2)	41,782 (100.0)
특용작물	6,782 (4.1)	155,434 (94.9)	1,546 (0.9)	163,762 (100.0)
기타	14,560 (62.6)	8,452 (36.3)	241 (1.0)	23,253 (100.0)
합 계	168,256 (11.2)	841,513 (56.2)	488,466 (32.6)	1,498,235 (100.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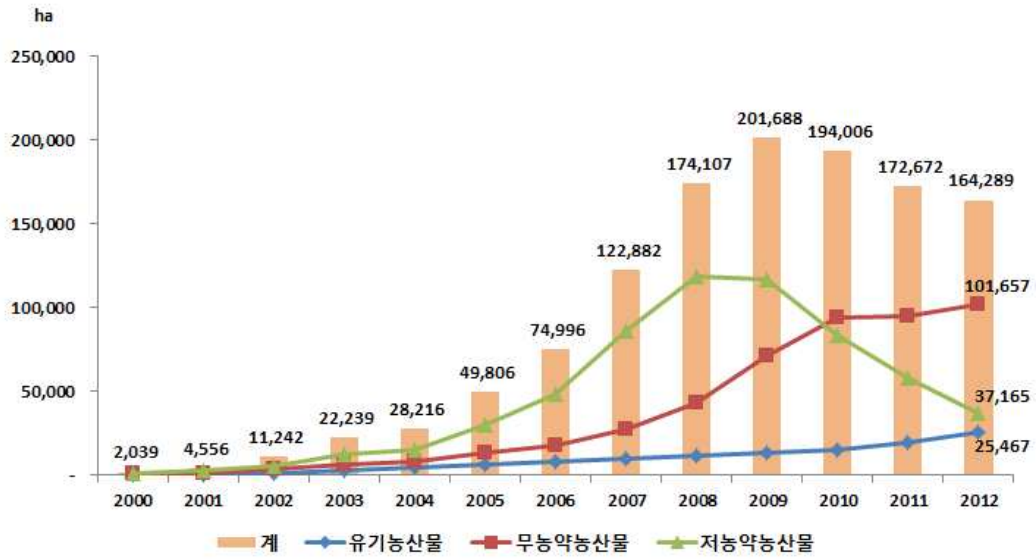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면적을 보면,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8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다소 줄어들었고, 2009년 201,688ha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하여 2012년에는 172,672ha에 머물렀음<그림 5>

○ 유기 인증면적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25,467ha에 이르렀음

○ 무농약 인증면적 역시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2010년 94,533ha까지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 증가세가 완화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인증면적이 확대되어 2012년에는 101,657ha에 달함

○ 저농약 인증면적은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후 감소하고 있음. 2008년 119,136ha에서 2012년 37,165ha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무농약 인증면적에 추월당했다는 것이 큰 특징임. 저농약 인증면적의 감소는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 폐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그림 5.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2012년 말 기준,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70여 개 민간인증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2012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기관의 인증건수는 각각 7,717건과 16,178건이며, 총 23,895건으로 나타났음. 인증면적은 총 164,289ha로 총 경지면적 1,729,982ha의 9.5%에 이름
- 민간 점유율을 보면,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건수는 전체의 67.7%, 인증면적은 73.7%, 인증농가 수는 73.1%를 차지하여 인증건수와 인증농가 수, 인증면적 모두에서 국가기관의 인증실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민간기관의 인증건수는 2009년부터, 인증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2007년 이후부터 국가기관의 인증실적을 넘어섰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3. 2012년 기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단위: 건, ha, 호, 톤, %

구 분		농관원	민간	계	민간인증 점유율(%)
유기	건수(건)	1,373	2,634	4,007	65.7
	면적(ha)	6,795	18,672	25,467	73.3
	농가 수(호)	4,130	12,603	16,733	75.3
	출하량(톤)	89,898	78,358	168,256	46.6
무농약	건수(건)	3,134	11,525	14,659	78.6
	면적(ha)	12,522	89,135	101,657	87.7
	농가 수(호)	11,735	78,590	90,325	87
	출하량(톤)	220,480	621,033	841,513	73.8
저농약	건수(건)	3,210	2,019	5,229	38.6
	면적(ha)	23,866	13,299	37,165	35.8
	농가 수(호)	22,571	13,454	36,025	37.3
	출하량(톤)	307,144	181,322	488,466	37.1
합계	건수(건)	7,717	16,178	23,895	67.7
	면적(ha)	43,183	121,106	164,289	73.7
	농가 수(호)	38,436	104,647	143,083	73.1
	출하량(톤)	617,522	880,713	1,498,235	58.8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전남이 82,275ha로 가장 넓어

○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보면, 전남이 총 82,275ha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의 50.1%로 가장 넓음

- 다음으로 경북 19,185ha(11.7%), 충남 14,980ha(9.1%), 경남 12,502ha(7.6%), 전북 10,371ha(6.3%), 경기 9,232ha(5.6%), 강원 8,124ha(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표 4>
- 반면 충북과 제주는 각각 5,180ha(3.0%)와 2,729ha(1.7%)로 다른 지역에 비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크게 적었음

○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남의 경우 총 경지면적 303,004ha 중 82,275ha가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아 26.6%라는 높은 비중을 보였음

- 전남지역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재배면적이 친환경재배면적 82,275ha의 92.1%로 향후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더라도 친환경농업 생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충북과 경북은 유기와 무농약농산물의 재배면적이 친환경재배면적의 3.0% 이하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특히 경북지역은 유기와 무농약 재배면적이 각각 1,961ha와 6,577ha인데 반해 저농약 재배면적이 10,674ha로 매우 높아 저농약 폐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경북지역 저농약 농산물의 많은 비중을 과수류가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저농약 폐지로 인하여 과수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표 4.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12)

단위: 건, 호, ha, %

구 분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인증면적 비중(%)	경지면적 비중(%)
경기	건수	707	2,339	335	3,381	5.60	4.53
	농가 수	1,467	5,225	1,826	8,518		
	면적	2,864	4,585	1,783	9,232		
강원	건수	357	1,184	274	1,815	4.90	7.25
	농가 수	1,048	3,604	925	5,577		
	면적	2,027	5,203	894	8,124		
충북	건수	239	579	336	1,154	3.00	4.15
	농가 수	910	2,754	1,516	5,180		
	면적	1,004	2,401	1,486	4,891		
충남	건수	274	1,107	551	1,932	9.10	6.26
	농가 수	2,042	3,882	3,922	9,846		
	면적	3,093	4,428	7,459	14,980		
전북	건수	395	1,387	584	2,366	6.30	5.03
	농가 수	1,308	5,125	2,278	8,711		
	면적	2,162	5,650	2,559	10,371		
전남	건수	999	4,358	838	6,195	50.10	25.73
	농가 수	6,167	53,495	6,669	66,331		
	면적	9,149	66,617	6,509	82,275		
경북	건수	454	1,478	1,276	3,208	11.70	6.59
	농가수	2,115	8,176	12,129	22,420		
	면적	1,961	6,577	10,647	19,185		
경남	건수	427	1,478	855	2,760	7.60	7.00
	농가 수	1,416	7,193	6,549	15,158		
	면적	1,719	5,117	5,666	12,502		
제주	건수	155	749	180	1,084	1.70	4.45
	농가 수	260	871	211	1,342		
	면적	1,488	1,079	162	2,729		
계	건수	4,007	14,659	5,229	23,895	100.00	9.50
	농가 수	16,733	90,325	36,025	143,083		
	면적	25,467	101,657	37,165	164,289		

주: 광역시의 자료는 전체 합계에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통계청.

▢ 유기농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 유기농산물 수입량은 2005년 8,501톤에서 2012년 12,023톤으로 연평균 8%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기준으로 국가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이 4,600톤, 전체의 3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베트남 3,048톤(25.4%), 미국 2,760톤(23.0%), 인도 1,315톤(10.9%) 등의 순서로 나타남
- 2012년 기준으로 품목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귀리, 알팔파 등의 사료작물이 11,049톤, 전체의 9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바나나 1,154톤(9.6%), 밀 1,000톤(8.3%), 키위 680톤(5.7%) 등의 순서로 나타남

표 5. 연도별 유기농산물 수입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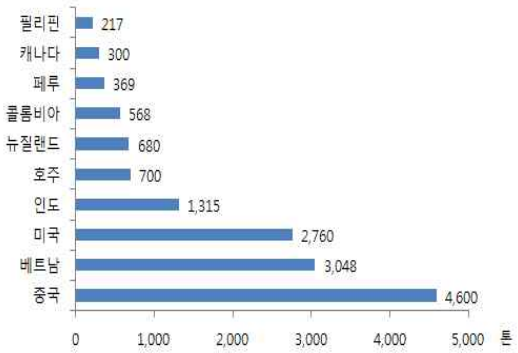
단위: 톤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입량	8,501	6,843	9,919	11,601	10,272	13,759	14,686	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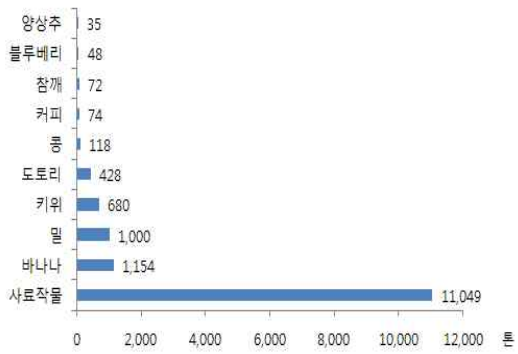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3).

그림 6. 국가별·품목별 유기농산물 수입현황(2012년 기준)

<상위 10개 국가>



<상위 10개 품목>



주: 사료작물은 귀리, 알팔파 등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3).

2.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규모와 전망

▢ 2012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3조 809억 원 수준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법별 재배면적에 단수를 적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농법별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양을 추정한 후, 유통업체의 수수료, 유통비용,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였음

○ 2012년 기준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 추정 결과 곡류의 유통규모는 약 9,701억 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의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 중에서 쌀이 8,751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채소류는 9,200억 원으로 전체 유통규모의 29.9%를 차지함
- 과실류가 다음순으로 전체 유통규모의 22.7%인 6,986억 원으로 나타남

○ 따라서 2012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규모는 2011년보다 5.5% 감소한 3조 8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시장규모가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이유는 저농약 인증 재배면적이 201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데다 가뭄과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단수가 감소하여 출하량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임

표 6.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2012)

단위: 억 원, %

구 분	곡류	쌀	채소류	과실류	서류	특작기타	계
유통규모	9,701	8,751	9,200	6,986	1,061	3,860	30,809
비중(%)	31.5	28.4	29.9	22.7	3.4	12.5	100.0

주: 2012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하량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 2012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이 13.2%인 4,081억 원, 무농약이 55.7%인 1조 7,175억 원, 저농약이 31.0%인 9,552억 원으로 나타남<표 7>

- 무농약 인증 시장규모가 전년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7.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단계별 시장 유통규모(2012)

단위: 억 원, %

구 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계
곡류	1,748	7,501	452	9,701
쌀	1,588	6,738	426	8,751
기타	160	764	26	949
채소류	1,325	5,104	2,770	9,200
과실류	207	546	6,232	6,986
서류	211	784	66	1,061
특작기타	590	3,239	31	3,860
계	4,081	17,175	9,552	30,809
비중	13.2	55.7	31.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표 8.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단계별 재배면적 현황

단위: ha

구 분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2000	296	876	867	2,039
2005	6,095	13,803	29,909	49,807
2008	12,033	42,938	119,136	174,107
2009	13,343	71,039	117,306	201,688
2010	15,517	94,533	83,,956	194,006
2011	19,311	95,253	58,108	172,672
2012	25,467	101,657	37,165	164,289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3).

▢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전망

○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친환경농업 발전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향후 2020년까지의 친환경농산물 시장 유통규모 전망치는 친환경농산물 시장(소매단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세가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함

- 또한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제 폐지에 이어 2016년 저농약 인증제 완전 폐지 등의 예상되는 중요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였음. 즉 저농약 인증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일부 유기와 무농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하였음. 전환되는 정도는 농가조사[1] 결과를 활용하였음
- 농가조사 결과 저농약농가들의 인증 폐지에 대한 대응방향으로는 유기전환 5.7%, 무농약전환 30.7% 등으로 나타남. 저농약농가들의 전환시기에 대해서는 2016년이 전체의 48.0%로 가장 많았고, 2013년 21.0%, 2014년 15.5%, 2015년 13.0%, 2017년 0.5% 등으로 나타남

표 9.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한 대응계획

구 분		무농약 전환	저농약 유지[1]	GAP 전환	관행재배 (일반재배)	유기 전환	계
저농약 품목류	곡류	50.0	13.8	3.8	23.8	8.8	100.0
	과일류	14.0	42.0	32.0	9.0	3.0	100.0
	채소류	32.0	27.0	26.0	9.0	6.0	100.0
전 체		30.7	28.6	21.8	13.2	5.7	100.0

주: 1)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와 상관없이 저농약 농산물의 계속 생산을 의미함.

1)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농가반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3. 2. 14 ~ 28일까지 전국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65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10. 저농약재배에서 다른 농법으로 전환 시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결정 못함	계
저농약 품목류	곡류	20.3	15.9	8.7	53.6	0.0	1.4	100.0
	과일류	22.4	15.5	10.3	48.3	1.7	1.7	100.0
	채소류	20.5	15.1	19.2	42.5	0.0	2.7	100.0
전 체		21.0	15.5	13.0	48.0	0.5	2.0	100.0

○ 2013년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평년작황을 가정할 경우 2012년 대비 1.8% 정도 증가한 3조 1,37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저농약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인상의 효과로 유기와 무농약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친환경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하기 때문

○ 2014년의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3조 4,434억 원, 2015년에는 3조 8,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임<표 11>
- 저농약인증제가 2016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2016년에는 저농약 인증 시장규모가 없어지나 유기와 무농약의 증가로 2015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 이후 점차 회복되어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규모의 20.0%인 7조 4,749억 원이 될 전망

○ 품목류별로 보면 곡류와 채소류는 유기와 무농약의 증가로 저농약농산물이 사라지는 2016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일류의 경우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이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반해 저농약농산물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6,986억 원에서 2013년 5,903억 원, 2015년 4,53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되는 2016년에는 2012년보다 72.0% 감소한 4,53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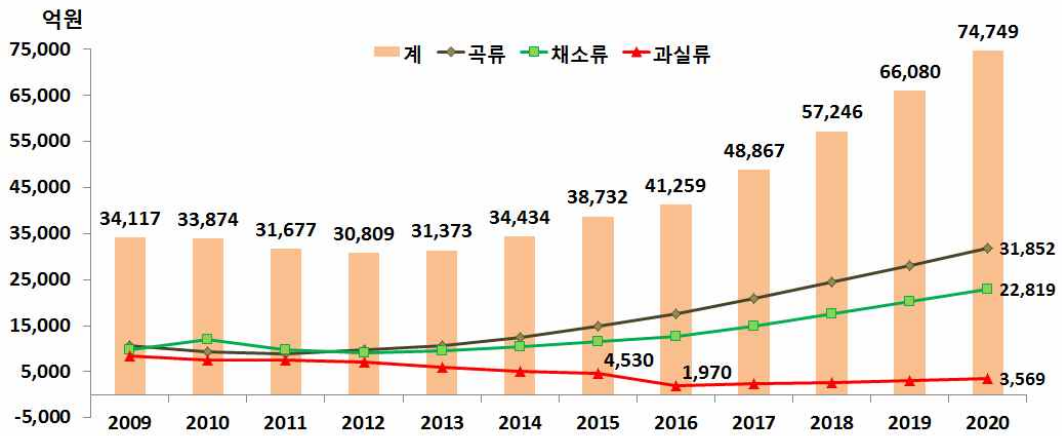
표 11. 품목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곡 류		10,682	8,809	9,701	10,588	12,539	14,898	17,581	31,852
	쌀	10,125	7,979	8,751	9,548	11,301	13,422	15,832	28,682
	기타	557	830	949	1,040	1,238	1,476	1,750	3,170
채소류		9,848	9,818	9,200	9,491	10,430	11,621	12,596	22,819
과실류		8,408	7,604	6,986	5,903	5,030	4,530	1,970	3,569
서 류		1,136	1,463	1,061	1,152	1,359	1,610	1,888	3,421
특작·기타		4,044	3,984	3,860	4,239	5,076	6,073	7,224	13,088
총 계		34,117	31,677	30,809	31,373	34,434	38,732	41,259	74,749

주: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종류별로 증가율이 체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2012년 이후 저농약인증 농산물 중 무농약인증 진입은 15% 내외, 2016년에는 20~35%로 가정하여 전망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그림 7. 품목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2016년 이후 저농약 폐지 시)



주: 저농약인증의 경우 2016년 이후 저농약 완전 폐지를 적용함.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음

- 유기농산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4,081억 원에서 2013년 4,575억 원, 2015년 6,510억 원, 2020년 1조 4,296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
- 무농약농산물의 경우도 2012년 1조 6,420억 원에서 2013년 1조 9,322억 원, 2015년 2조 7,444억 원, 2020년 6조 45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저농약농산물의 경우는 2012년 9,552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4,77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

표 12.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유기농	2,426	3,000	4,081	4,575	5,449	6,510	7,891	14,296
무농약	13,178	16,420	17,175	19,322	22,981	27,444	33,369	60,453
저농약	18,514	12,257	9,552	7,476	6,005	4,779	-	-
전 체	34,117	31,677	30,809	31,373	34,434	38,732	41,259	74,74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3. 세계 유기농업의 현황 및 시장 규모

▢ 세계 유기농업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60개국, 유기농경지[2] 3,700만 ha에서 이행

○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은 2009년 대비 0.1% 감소하였는데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감소가 많은 영향을 미쳤음

○ 대륙별로는 오세아니아가 1,2144,984ha로 가장 넓고, 유럽이 10,002,087ha, 라틴아메리카 8,389459ha, 아시아 2,778,291ha, 북아메리카 2,652,624ha, 아프리카 1,075,829ha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8>

- 기타 유기지역[3]의 면적은 2010년 기준 4,300만 ha으로, 대부분은 야생채집이며, 유기농경지 면적과 합한 총 유기농업 면적은 8,000만 ha에 이름. 유기농경지가 46%, 기타 유기지역이 5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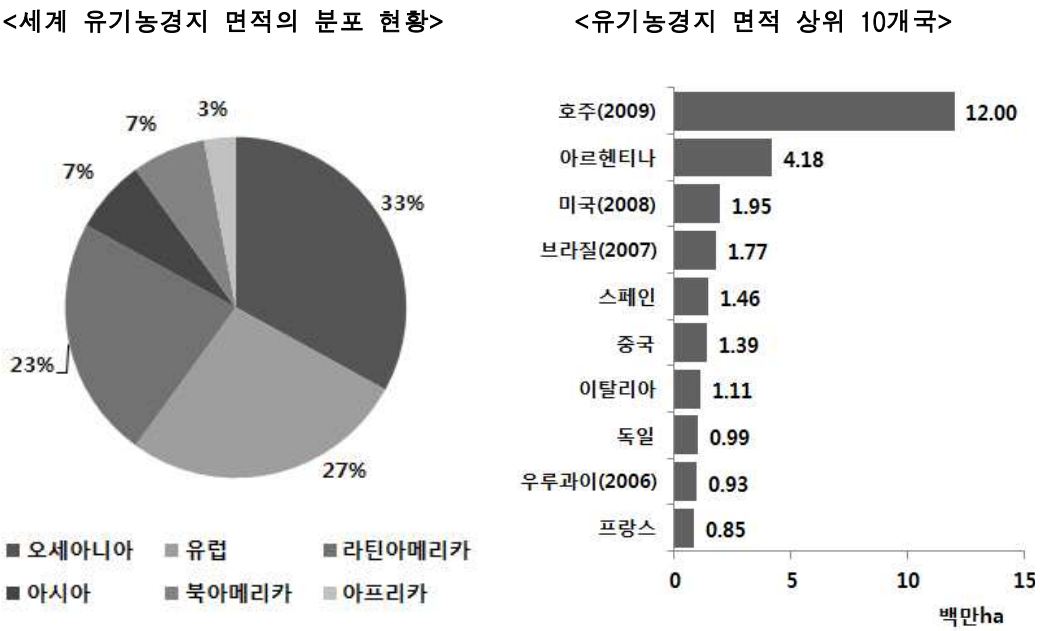
그림 8. 세계의 유기농업 실천면적(2010)

자료: IFOAM(2012).

2) 유기농경지는 논과 밭 등의 토지에서 유기농업활동을 하는 농경지를 의미하며, 곡류와 채소류를 재배하는 경작지를 의미함.

3) 기타 유기 지역은 비농업지역(non-agricultural areas)으로, 수경재배, 산림, 방목지, 야생채집, 양봉 등의 형태로 유기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을 의미함.

그림 9.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 분포 현황(2010)



자료: IFOAM(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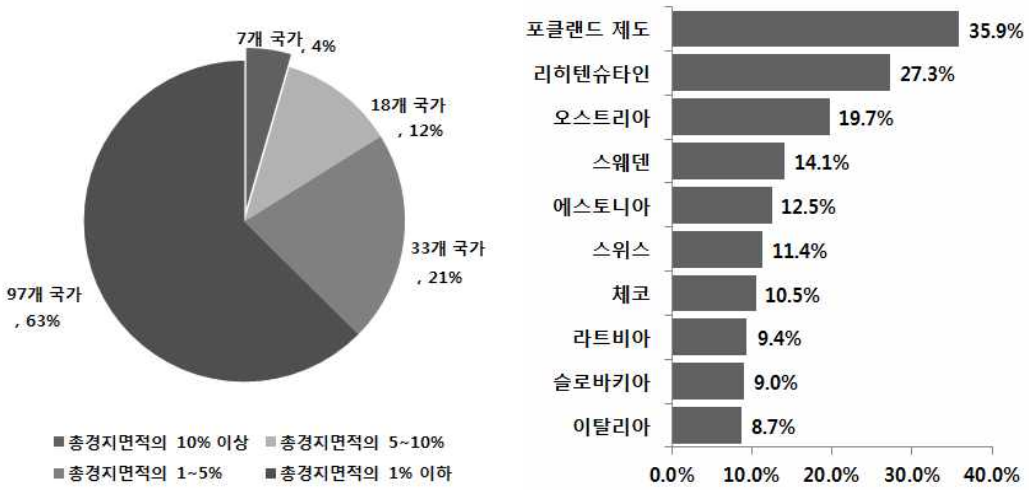
○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의 분포를 보면 오세아니아 지역이 33%로 가장 넓음. 다음으로 유럽 27%, 라틴아메리카 23%, 아시아 7%, 북아메리카 7%, 아프리카 3%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9>

- 오세아니아의 경우 유기농경지 가운데 대부분인 약 97%가 방목지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아프리카는 유기농경지의 면적은 넓지 않지만 기타 유기지역이 매우 넓은 것으로 파악됨

○ 국가별 유기농경지 면적은 호주가 1,200만 ha로 가장 넓고, 아르헨티나 418만 ha, 미국과 브라질이 각각 195만 ha, 브라질 177만 ha 등의 순임. 중국의 유기농경지가 2008년 185만 ha에서 2010년 139만 ha로 크게 감소하면서 순위가 4위에서 6위로 내려간 것이 특징임. 한국은 15,518ha로 조사되었음<그림 9>

그림 10. 유기농경지 비중의 분포(2010)

<유기농경지 비중의 분포> <유기농경지 비중 상위 10개국>



자료: IFOAM(2012).

○ 세계 유기농경지는 전체 농경지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음. 유기농경지가 전체 농경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대륙별로 보면 오세아니아가 2.9%로 가장 높고, 유럽이 2.1%로 나타남

- 유럽지역을 EU로 한정하면 5.1%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임

○ 국가별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은 포클랜드제도가 35.9%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리히텐슈타인 27.3%, 오스트리아 19.7%, 스웨덴 14.1%, 에스토니아 12.5%, 스위스 11.4%, 체코 10.5%의 순으로 7개 국가가 경지면적의 10% 이상이 유기농경지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은 0.84%로 2009년 0.74%에서 0.1% 높아졌음

- 유기농경지가 경지면적의 5~10%와 1~5%인 국가는 각각 18개국과 33개국이며, 1% 이하는 97개국으로 대다수를 차지함

▢ 2010년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약 591억 달러(445억 유로)

○ 시장규모는 1999년 150억 달러에서 2010년 591억 달러(67조 원)로 빠르게 성장하였음<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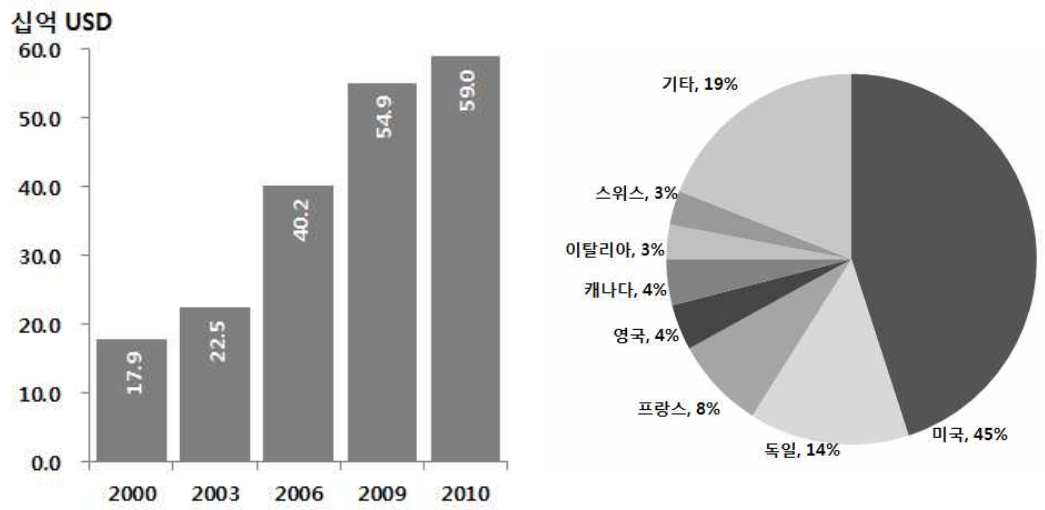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산업투자 및 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유기농식품시장도 소폭 위축되었으나 2010년 다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음. 두 지역에서 전세계 판매량의 90%를 구입하고 있음

- 미국은 가장 큰 유기농식품 시장으로 202억 유로의 규모임. 다음으로 독일 60억 유로, 프랑스 34억 유로로 나타남
- 덴마크는 유기농식품 구입비율이 7.5%로 가장 높으며, 오스트리아 6.0%, 스위스 5.7%로 나타남. 일인당 유기농식품 소비액은 스위스와 덴마크가 각각 153유로와 142유로로 높음

그림 11. 유기농식품의 시장 규모 및 분포

[유기농식품 시장의 규모 변화] [유기농식품 시장의 국가별 분포]



자료: IFOAM(2011).

○ 세계 유기농업 생산 및 시장현황은 <표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유기농경지는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기농경지의 비중 역시 높아짐. 기타 유기지역 역시 꾸준히 증가
- 유기농식품 생산자는 인도, 우간다,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 위주이며, 시장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선진국 위주로 형성되어 있음

표 13. 세계 주요국의 유기농식품 생산 및 시장현황

구 분	내 용	선도 국가
유기농경지	• 2010년: 3,700만ha • 2009년: 3,710만ha • 1999년: 1,100만ha	• 호주: 1,200만ha (2009년) • 아르헨티나: 420만ha • 미국: 190만ha (2008년)
유기농경지 비중	• 2010년: 0.90% • 2009년: 0.85% • 2008년: 0.81%	• 포클랜드제도: 35.9% • 리히텐슈타인: 27.3% • 오스트리아: 19.7%
유기농경지 증가율	• 2010년: -5만ha (-0.1%) • 2009년: +190만ha (+5%) • 2008년: +290만ha (+9%)	• 프랑스: +16.8만ha (+24%) • 폴란드: +15.5만ha (+42%) • 스페인: +12.6만ha (+9%)
기타 유기지역 (주로 야생채집)	• 2010년: 4300만ha • 2009년: 4100만ha • 2008년: 3190만ha	• 핀란드: 780만ha • 브라질: 620만ha (2007년) • 카메룬: 600만ha
생산자 수	• 2010년: 160만 • 2009년: 180만 • 2008년: 140만	• 인 도: 400,551 • 우간다: 188,625 • 멕시코: 128,826
시장규모	• 2010년: 591억 달러 (445억 유로) • 2009년: 541억 달러 • 1999년: 152억 달러	• 미 국: 267억 달러 (202억 유로) • 독 일: 84억 달러 (60억 유로) • 프랑스: 47억 달러 (34억 유로)
일인당 소비액	• 2010년: 8.6달러 (65유로)	• 스위스: 312달러 (153유로) • 덴마크: 198달러 (142유로) • 룩셈부르크: 177달러 (127유로)
유기농 인증기관	• 2011년: 549개 • 2010년: 532개 • 2009년: 489개	• 일본, 미국, 한국

자료: IFOAM(2012).

4. 시사점과 과제

▢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01,688ha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2010년 이후 저농약인증 면적의 감소로 연평균 5.4%의 감소세로 전환됨. 전체적인 인증면적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은 2010년 이후 각각 연평균 18.0%, 2.5% 증가세를 보임

○ 2012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저농약이 36.0%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에는 저농약 농산물 감소보다 유기와 무농약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 마련 필요

○ 2012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출하량을 보면, 유기 168,256톤(11.2%), 무농약 841,513톤(56.2%), 저농약 488,466톤(32.6%)으로 아직 저농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과일류의 경우 전체 저농약농산물 가운데 과실류 저농약이 62.5%를 차지하고 있어 2015년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대응하여 과실류 저농약을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저농약 인증농가의 신속한 유기와 무농약 인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특히 저농약 인증면적 비중이 매우 높은 과수 부분을 위한 대응방안이 요구되며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생산자 보험, 유기농 과수 인증농가의 재배기술 매뉴얼 작성 및 보급, 유기과수재배 선도농가의 명예지도사 위촉, 지속직불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필요

○ 친환경농업 인증실적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육성전략에 따라 지자체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단위에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중요한 관건임. 더 나아가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목과 브랜드 발굴을 통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확대에 대응한 유통 및 소비대책 필요

○ 2012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규모는 2011년보다 2.7% 감소한 3조 8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가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이유는 저농약 인증 재배면적이 201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데다 가뭄과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단수가 감소하여 출하량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임

○ 2013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저농약인증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5년까지 저농약농산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지만, 곡류와 채소류의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임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곡류와 채소류의 유기, 무농약 농산물의 수요창출(가공식품 생산, 학교급식 확대 등)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3년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4. 18
발 행 2013. 4. 19
발 행 인 최세균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454-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